

정례브리핑

2021.11.29.(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장관부터 실무급까지 각급에서 미국 등 주요국 정부와 정책협의 등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최,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 등 민간 차원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수료식이 열립니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2030 세대 중심으로 구성한 민간평화외교사절로 지난해 7월부터 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통일부는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의 공식후원기관으로 지난해부터 이들의 국제행사 참여 등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수료식에 참석해서 수료생 32명을 격려하고 우수단원에게 통일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해 드린 대로 내일부터 판문점 견학이 재개됩니

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하고 하루 20명씩 견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개월여 만에 재개된 판문점 견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12월 견학일정은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월 견학일정은 12월 10일부터 판문점견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른 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민화협 창립 23주년 기념·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11월 30일에는 '2021 워터데탕트 대토론회'에서 영상으로 축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11월 30일 벤 킹(Ben King) 뉴질랜드 외교부 차관보를 접견하고, 12월 3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축사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서 드릴 말씀을 마치고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 보도했는데, 북한의 오미크론 관련 대응동향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북·중 국경 봉쇄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 추세,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최신 동향들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방역 강화 등을 독려해 왔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서도 11월 27일부터 조선중앙TV 등 공식매체를 통해서 발생 사실, 유행 추세, WHO와 세계 각국의 대응조치들을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투철한 방역의식을 견지하면서 방역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초특급 비상방역 단계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대응하여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북·중 국경 봉쇄 해제 문제는 북·중 간 협의 그리고 접경지역의 방역시설 등 정비동향,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미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관련 동향들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북한 로켓공업절입니

다. 이와 관련 미사일 시험 등 특이 동향 징후가 있는지, 예상되는 움직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해에 발행된 북한 달력은 11월 29일을 '로켓공업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9일 현재까지 북한이 로켓공업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거나 기념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1월 29일 오늘도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에서 로켓공업절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전매체들을 통해서 11월 29일을 화성-15형 미사일발사일로 기념하고, 화성-15형 발사 성과를 회고하는 보도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등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북한의 로켓공업절 기념 동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주신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